

‘ 감사함으로 쓰임 받습니다 ’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

>> 동경성서학원(東京聖書学院)

◆ 어머니의 방문과 미용봉사

2월 1일 저희는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희 어머니께서 3박4일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게 되어 함께 왔습니다.

40년 이상 미용실을 운영해 오셨던 어머니께서는 동경성서학원 신학생들에게 무료 미용봉사를 해주셨습니다. 한국의 두배 가까이 되는 미용요금 덕에 직접 머리를 손질했던 학생들에게 미용봉사를 해주셔서 신학생들 모두 기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복음 뿐만 아니라 한류도 전해준다고 감사의 웃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3박 4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족과도 감사와 행복이 가득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 코리안 나이트(Korean Night)

2월 7일 동경성서학원에서 특별한 전도집회가 열렸습니다. 매년 한 나라를 선정하여 문화 행사를 통해 사람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대한민국을 선정해 ‘코리안 나이트’라는 전도집회를 열었습니다.

황명아 선교사와 민하가 한복을 입고 사람들을 맞이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양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주제로 하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잠시 일본을 방문한 어머니의 비법을 전달하여 동경성서학원들이 비빔밥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먹던 것과 거의 비슷한 맛을 만들어내어 집회 후 다들 기쁘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준호 선교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1월 중 한국에 있을 때 설교 부탁을 받고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선교사로서 일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포기할 수 없기에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했고, 온전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총 33명이 코리안 나이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 22명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코리안 나이트를 찾은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 전도실습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교회와 연결시키는 전도실습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초등학교 앞에서 전단지 나눠주며 아이들에게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2월 13일에는 닭꼬치 전도를 아이들을 초청했는데요. 길을 가던 아이들도 닭꼬치 냄새에 이끌려 왔습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교제하고 교회에 연결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2월 20일의 전도실습은 이번학기의 마지막 전도실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있어서도 마지막 전도실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전도실습은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모치츠키(もちつき)대회로 떡을 만들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신학생들과 계속 연결되는 아이들이 속히 주의 자녀가 되도록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스피치 대회와 찬미 리사이틀**

2월 14일은 동경성서학원 옆에 있는 OMS(One Mission Society) 교회에서 ‘스피치 대회’가 열렸습니다. 동경성서학원의 외국어 수업으로 영어와 한국어가 진행되는데요. 일년동안 배운 학생들이 자신이 배운 언어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어를 배운 학생들은 영어로 자신의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수업에 참여한 무라카미 마사타카(村上将隆)학생은 한국어로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잘 준비하여서 주기도문을 한국어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황명아 선교사는 무라카미 학생이 한국어로 주기도문을 올려드리는 모습에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2월 21일은 ‘찬미 리사이틀’이 열렸습니다. 학생들이 일년동안 배운 피아노를 발표하는 시간인데요. 초급부터 고급반까지 모두 함께 연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수업을 받지 않는 않았지만, 피아노를 전공한 황명아 선교사도 참여했습니다. 오랜만의 연주라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했지만, 학생들과 함께 연주에 참여하여 은혜와 감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채플 설교**



2월 25일 화요일, 동경성서학원의 이번년도 마지막 채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채플에서 이준호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세가지 비유를 통해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 일본땅에 전하기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저희는 동경성서학원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역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2018년 5월 24일, 일본 선교사로서 첫발을 내딛은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짧은 시간 안에 일본어로 신학생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어디에서든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니시오치아이교회(西落合教会)**

니시오치아이교회를 담당하시는 야스이 키요시(安井聖)목사님께서 심장수술을 받게되어 한달 동안 교회를 비우시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사역을 앞두고 다른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현재 신학생인 세키 유야(関勇矢)형제와 함께 돌아가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속히 목사님의 건강이 회복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2월 16일에는 작년 7월까지 섬겼던 사야마 살롬 교회에 방문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코로나 19 바이러스**

현재 일본도 코로나19의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옆에 보시는 일본 지도의 붉은 부분은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나이가 젊거나 중증이 아니면 코로나 19 검사를 진행하지 않아서 더 많은 확진자가 있을지도 모르는 불안감이 주변을 뒤덮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스크 품귀현상에 아침부터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한 행렬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 교회는 예배를 제외한 대부분의 행사를 축소 혹은 취소했으며 일부 교회에서는 코로나 19가 진정될 때까지 성찬식을 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교회도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저의 고향인 대구의 소식을 듣고 있노라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루 속히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전세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족 소식

2월 4일의 채플에서 OMS의 총재이신 밥 페더린(Bob Fetherin)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2017년 계양선교훈련센터에서 선교훈련을 받던 때, 자녀가 없어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던 저희는 때마침 선교센터를 방문한 페더린 목사님 부부에게 상담을 요청했고,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만남에서 저희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민하와 함께 기쁨의 재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동경성서학원의 생활을 뒤로하고 새로운 곳을 향해 준비하는 저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을 통해 다시금 이 땅을 변화시키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신뢰하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을 전할 것을 다짐합니다. 새로운 사역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타케모리 코이치(嶽森幸一) 형제를 소개합니다!

타케모리 형제는 동경성서학원 2학년에 재학중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릴적부터 교회를 좋아하던 청년입니다. 사회인으로서 직장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해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앞에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큰 고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통해 그를 부르셨지만, 잠시 고민하여 다양한 일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여 준비중에 있습니다.

동경성서학원에서 공부하며 성경을 구조적으로 알게 된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타케모리 형제는 일본 홀리네스 교단의 목사가 되어서 가택방문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할 것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T&M이라는 전도프로그램을 통해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타케모리 형제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소개합니다



1. 남은 학업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2. 형제와 사촌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4남중 둘째, 형제 모두 세례를 받았으나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촌은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기도해주세요!

1.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지도록
2.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더욱 일본을 품을 수 있도록
3. 일본 교회안에 복음전도를 위한 헌신자가 많이 일어나도록
4. 타케모리 코이치(嶽森幸一) 형제를 위해
5. 새로운 사역지를 위해 기도로 준비되도록
6. 3월의 사역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설교/사역지 이동 준비)

☎ 후원안내

- 연락처 : 080-4188-2604
070-4226-3122
- 이메일 :
directed@naver.com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529-49085-948421
예금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